

1억 '요우커'를 잡아라 (중국인 관광객) 광주·전남 마케팅 총력

광주 '차이나 프렌들리' 센터
전남 크루즈선 유치에 사활
무안공항 저가항공 공동 추진

■ 국가별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경비(단위: 만원)



민선 6기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의 화두는 중국 관광객 유치다.

민선 5기 때 유행했던 실속없는 '외국 기업 투자유치' 등은 뒷순위로 밀리고, 첫 주력사업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선언하는 자치단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올해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중국인의 한국 선호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씀씀이가 큰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큰 매력이다.

10월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중국공략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는 광주시다. 광주시는 민선 6기 핵심사업으로 '중국과 친해지기'(China Friendly)를 추진중이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첫 해외 출장지로 지난 5~8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지 주요 여행사들과 관광협약을 맺고 중국 관광객 유치 네트워크를 선점했다. 또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유치 등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출범 직후 '중국과 친해지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중국인 방문객을 위한 '중국 프렌들리 센터' 설치, 광주 태생으로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용성 생가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구축 등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는 또 지난해 광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15만8000명 중 46%가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도 여수와 광양, 목포 등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광양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어 중국 여행객을 끌어 모으는

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크루즈를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이 배에서 한번 내렸다 지나가면 인근 상가의 물건을 훑는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으로 오는 10월부터 무안공항에 중국 10개 도시를 오가는 저가항공사를 유치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타 지역도 '중국 관광객 모셔오기'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2016 중국인 한국 방문의 해'를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 계획을 담은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10월까지 중국 6개 도시를 오가는 전세기 120여대를 운항하기로 하는 등 중국 관광객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도 최근 부산 내 중국인 대학생 중심 'SNS기자단'을 구성하고, 부산 여행 수기 등을 개인 및 부산시 웨이보(중국의 트위터)에 올려 부산을 홍보하도록 했다. 강원도는 한 술 더 떠 동해안 대표 해변인 강릉 정동진에 대규모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관광연구원은 최근 '2014년 하반기 관광경제 예측보고서'에서 올해 해외로 나가는 중국관광객이 1억1600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8.2% 늘 것으로 추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영선 "세월호法 특검추천권 다시 요구"

새정치 내부·시민사회단체·유족들 반발에 추가협상 시사

새누리 "수용할 수 없다"…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유동적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와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가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혀 세월호법 논란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이 반발하며 각종 집회를 여는 등 재협상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지자 실무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3일로 계획했던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

을 드린다"면서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은 못 하지만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실무협상 결과를 포함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월호 사건 조사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야당 간사인 전혜철 의원은 지난 8일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실무협상을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간사직에서 물러난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라며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는 10일 오전 여의도 새정치연합 중앙당 당사에서 특별법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틀째 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민중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노조 등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극에 대한 책임이 없는 집권 세력이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꾸리는 주도권을 갖게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법사회적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광주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역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국민의 뜻에 배신한 야합의 산물을 내놓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을 항의방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섬진강 래프팅 '더위 탈출'

본격적인 휴가철인 10일 오후 곡성 섬진강변으로 휴가를 온 피서객들이 고무보트 위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오월' 풍랑... 표류하는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작품 전시 유보... 표현의 자유 논란 속 책임 큐레이터 사퇴

광주비엔날레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특별전에서 제외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을 빚은 가운데 책임 큐레이터마저 사퇴하는 등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관련기사 3면>

특히 일부 참여 작가가 "이미 광주정신이 퇴색한 전시에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며 작품 철회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 프로젝트 '달콤한 이슬, 1980 그후'를 진행중인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8일 "논란이 된 홍성담 작가의 걸개 그림 '세월오월'의 전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책임 큐레이터인 윤범모가 전대 교수를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오월'을 전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시기획을 관철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사퇴를 표

명했다"며 "전시 유보 결정은 내가 불참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오월'은 가로 10.5m, 세로 2.5m 크기의 걸개그림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보듬는다는 취지의 걸개그림이다. 하지만 작품에 박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 등이 등장하면서 광주시에서 수정

을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흥 작가는 지난 8일 허수아비를 담으려 수정한 뒤 작품을 제출했지만 재단이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작품은 내걸리지 못했다.

작품 전시가 유보되자 지역 작가와 시민 50여 명은 지난 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대형 프린트 작품을 입구에 전시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이날 개막행사는 주요 식순이 모두 생략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광주시의 예산이 지원된 전시에 주제를 벗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품 전시 문제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산대학교 062)605-0956

잇따른 태풍에 피서객 급감

해수욕장 상인들 울상 ▶7면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18면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상설자동차유리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차량인 표준 연비 및 용량 • C 200 1,991cc, 1,509kg, 자중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9kg, 자중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중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중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중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₂배출량 111g/km

표준 연비는 표준모드에서 90km/h로 주행할 때, 운전방법, 차량제동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